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인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를 둘러싼 환경은 괜찮은 것일까?

I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architectural history okay?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지상파 방송에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잦아지고 있다. 다양한 건축 관련 프로그램과 이야기가 대중에게 지금처럼 왕성히 전달된 때가 있었나 싶다. 사실 나는 건축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으로 1997년 '리빙TV'라는 매체에 반년간 출연하면서 영화와 건축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은 건설로 인식되고, 지금도 그렇듯 부동산이나 부실시공 같은 이미지가 우선되었다. 방송 작가나 진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들이 상대방에게는 놀라움의 대상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반응이 오히려 신기했고, '세상이 건축을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서점에는 수많은 건축사들과 건축대학 교수들이 펴내는, 비전문적으로 건축을 다루는 서적들이 넘쳐나고 있다.

유현준 교수를 비롯한 몇몇 건축계 인사들은 이미 연예인 수준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교육전문 방송 채널인 EBS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다양한 모양새의 '집'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른 상업방송에서는 빈집 찾기를 한다든가, 색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건축물을 구경하기도 한다. 아마 여기서 더 나아가면 도시와 건축을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말로만 듣던 소득 3만 불 시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가 싶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식·주'의 순서대로 대중들의 관심이 이동한 것 같기도 하다. 한동안 옷을 멋있게 입는 법을 알려주는 다양한 채널과 방송들이 넘쳐났었다.

어떻게 옷을 입으면 주목받는지, 촌스럽지 않은 지 등등... 그러다 몇 해 전부터는 오톤 '먹방'과 음식 이야기로 가득했다. 주방장들이 방송 스타가 되고, 온갖 프로에 초대받아 등장한다.

이제 드디어 의식주의 순서대로 주, 즉 건축의 시대가 온 것일까? 여기저기 오톤 건축 이야기로 가득하

다. 건축의 시대가 온 만큼 우리 건축사들은 행복할까? 웬지 이런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19세기 건축사들과 21세기 건축사들은 역량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 다만, 19세기 건축사들이 못하는 것 없이 온갖 꿈과 상상을 펼치며 존재했다면, 21세기 건축사들은 웬지 모르게 좁아진 자리에서 몸 둘 바를 모르는 것 같다.

르 코르뷔지에나 루이스 칸은 건축을 다루며 도시를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에는 어느 건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건축사들은 가뭄에 콩 나듯이 도시와 건축 이야기를 드물게 한다. 도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관찰하는 시선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런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 과연 스스로 역할을 축소한 것일까, 아니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일까?

도시와 관련한 이야기에서 빠지니 정책에서도 빠질 수밖에 없다. 도시가 너무 크다면 마을이나 동네로 가보자. 마을이나 동네에도 건축사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건축 문화인들이 도시를 휘젓고 다닌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1970년대 이후 모두 판박이다. 사회구조와 산업구조가 수도 없이 변화했는데, 이와 달리 똑같이 만들어진 도시들은 형편없다.

건축 과정에서도 시공자들이 느닷없이 건축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공자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하고 협의해야 할 내용조차 건축사에게 밀어 넣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에서까지 건축사에게 황당한 문제의 책임을 물으려 한다. 공사 현장에서 쓰레기를 태워도 건축사에게 연락이 오고,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넘어져도 건축사에게 따진다. 그러더니 이제는 건축의 질을 이야기하는 제도를 가지고 '건축사를 위하는 법'이라고 따지는 정치인도 생겼다.

우리의 상식이 그들에게 상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부 환경 탓을 할 텐가? 이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소리치고, 외치고, 알려야 할 것 같다. 이젠 능동적인 건축사가 되어야겠다. 그동안 우린 너무 수동적이었다.